

# 동화극문학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

윤 봉 식

동화극문학은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는 동화극의 창조를 위하여 창작되는 극문학의 한 형태로서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극적구성의 중심에는 인물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발전하며 절정을 이루고 결과가 맺어지는 이야기줄거리가 놓이게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86페이지)

종자가 아무리 훌륭한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이야기줄거리를 흥미있게 엮지 못하면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실현할수 없게 된다. 그것은 동화극의 관람대상인 어린이들이 흥미있는 이야기줄거리에 기대를 가지고 동화극을 보기때문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어린 관중들의 흥미를 한껏 끌어당길수 있게 강한 사건성을 띤 극의 련속적흐름으로 이야기를 꾸민다는데 있다.

어린이들의 주의집중력은 목적의식적이라기보다 흥미와 호기심에 많이 의존하며 그 지속성도 매우 짧다. 그러므로 하나의 대상에 오래동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인차 또 다른 대상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양적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흥미있게 꾸미자면 인물의 내면심리를 깊이 파헤칠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동선을 따라 사건성이 강한 이야기를 굴곡있게 빨리 전개하여야 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련이어 일어날수 있도록 주인공에게 긴박한 동화적정황을 부단히 제시함으로써 이야기가 극적견인력을 가지고 박력있게 흘러가게 한다. 주인공에게 부과된 행동과제가 시간적으로 절박하여야 주인공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벌리게 되며 그 과정에 이야기가 속도있게 전개되어나간다.

동화극문학 《아금랑》에서는 외적들과 그와 내통한 역적들에 의하여 종이 깨여짐으로써 당장 적들이 쳐들어오게 된 정황을 조성하고있으며 《진주굴의 물고기들》에서는 신기한 바위를 깨는가 마는가에 따라 잡혀온 물고기들과 마을의 운명이 결정되는 극적정황을 조성하고있다.

동화극문학과 류사한 문학형태인 동화문학에서는 긴급한 정황을 조성시킬수도 있고 조성하지 않을수도 있다.

동화 《메토끼의 나팔주둥이》는 일을 하지 않고 말만 하면서 공은 다 제가 세운것처럼 자랑하며 다니다가 망신만 당하는 메토끼의 교훈을 통하여 누구나 성실하게 땀을 바쳐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에게 부과된 행동과제는 시간을 다투는 운명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로부터 동화의 이야기흐름은 동화극문학에서처럼 강한 극적인 흐름을 타고 흘러가지 않는다.

동화극문학에서 처음부터 인물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기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제시되지 못하면 완만한 장면들이 흘러가면서 이야기가 처지고 변화무쌍하지 못하여 어린이들이 인차 지루해하고 싫증을 느끼게 된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어린 관중들의 흥미를 끌수 있게 정적인 묘사보다 주인공의 행동선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극적으로 전개해나감으로써 줄거리의 사건성을 강화해나간다.

동화문학에서는 인물의 행동묘사뿐아니라 초상묘사, 심리묘사, 자연묘사 등 여러 대

상에 대한 정적인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그러나 동화극문학은 무대우에서의 형상을 전제로 하는것만큼 이러한 정적인 묘사를 할수 없다. 동화극문학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생활내용을 전달하는것이 아니라 대사와 행동, 전개되는 생활화폭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스스로가 밝힐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동화극문학에서는 어린 관중들의 예상을 뒤집을수 있게 새로운 정황을 련이어 조성하면서 주인공의 행동선을 따라 이야기를 견인력있게 전개해나간다.

동화극문학 《사슴골의 교훈》에서는 수달로 가장한 산달놈의 정체를 미처 가려보지 못한 동생사슴이 도적놈을 동산의 귀중한 보물인 신기한 약재가 들어있는 방에까지 들어놓음으로써 이야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긴박한 극적긴장성을 띠고 흘러가게 된다.

이처럼 동화극문학에서는 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인상적이고 약동적인 표상을 주는 활동적인 세부를 간편하게 그려나가며 사람의 내면심리를 깊이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흥미있는 사건들로 이야기줄거리를 아기자기하게 엮어나간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은 다음으로 환상 및 과장의 수법을 리용하여 이야기를 신축성있게 전개해나간다는데 있다.

환상 및 과장의 수법은 동화적인 내용을 극적방식으로 표현하는 동화극문학에서 필수적인것이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우선 과장의 수법을 리용하여 사건조직에서 극적인 기대와 함축을 실현하고있다.

무대우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리해할수 있도록 하자면 동화적인 이야기를 길게 라렬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적으로 함축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동화극문학에서 과장의 수법은 동화극에 펼쳐지는 생활의 공부정형상을 마치 확대경으로 보듯이 명백하면서도 생동하게 그려줌으로써 강조하려는 사상적내용을 함축된 극적형상속에서 보여줄수 있게 한다.

동화극문학 《꿀꿀이의 호박농사》는 공부를 실속있게 하지 않고 남의 본만 따르다가 호박농사를 망치는 꿀꿀이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꿀꿀이가 호박을 키우는 과정과 토끼가 해바라기를 키우는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고 그것을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간단히 보여주고있으며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가을날의 이야기만을 기본적으로 무대우에 펼쳐보이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두 인물의 이야기를 흥겨운 음악속에서 순간에 짹짹 자라나 쟁반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해바라기와 느릿느릿한 음악속에서 맥없이 자라다가 주먹만한 열매밖에 달리지 않는 호박을 통하여 함축성있게 보여주고있다.

동화극문학 《우물에 빠진 지주》에서도 장수샘물을 너무 욕심스럽게 마신 지주놈이 갓난애기로 되는 생활을 과장의 수법으로 재미있게 형상하고있다.

동화극문학에서는 또한 환상의 수법을 리용하여 무대적인 시공간적제한성을 극복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희곡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인간과 그 생활의 전모를 그려내는 소설문학이나 영화문학과는 달리 현재로부터 과거에로, 과거에서 현재에로 그리고 또 미래에로 생활을 비약시키면서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그릴수 없다.

동화극문학도 희곡의 한 형태로서 시공간적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과장과 환상이라

는 특수한 형상수법의 리용으로 하여 이러한 제한성을 일정하게 극복하고있다.

동화극문학 《열두달의 집》에서는 《선달그믐날어머니》로부터 자기들의 잘못을 일기에 쓰라는 과업을 받은 두 학생이 흘러간 한해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교훈을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있다.

주인공들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자기들의 잘못을 찾지 못하자 《목은해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들의 지나간 생활을 펼쳐보여준다.

《목은해할아버지》는 1월과 2월을 비롯하여 열두달들을 차례로 불러들여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 보안원아저씨에게 끌려가는 용이의 모습과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공차기가 한창인 운동장만 바라보다가 망신당하는 철이의 모습들을 차례로 영사막에 펼쳐보여준다.

이러한 환상적회상식구성형식은 다른 이여의 희곡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동화극문학에만 고유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으로서 동화극적인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어주고 극적견인력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준다.

동화극문학 《달나라로 가자》에서는 수학연구소조의 두 학생이 서로 다른 공식으로 연구한 궤도를 따라 달나라로 날아가는 래일의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동화극문학에서는 동심적인 대사형상과 환상 및 과장의 수법을 결합하여 오늘의 생활에서 어제와 래일의 생활을 무대우에 펼쳐나가는 독특한 이야기줄거리전개수법을 리용하고있다.

동화극문학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영화문학이나 동화문학에서처럼 시공간적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나 무대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희곡의 다른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놓고볼 때 이러한 이야기줄거리조직수법은 동화극문학창작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동화극문학창작에서 이야기줄거리조직의 특성은 다음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명백하고 간결하며 직감적으로 리해할수 있도록 알기 쉽게 짚아준다.

동화극은 전환되는 무대장면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생활내용을 행동적으로 펼쳐보이고 충격적인 감정을 안겨주는 특성을 띠고있다.

동화문학은 어린 독자들이 한토막씩 이야기를 떼내어 읽을수도 있고 읽다가도 잘 리해되지 않으면 지나간 페이지를 다시 들춰볼수 있지만 동화극에서는 한번 지나간 장면을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려볼수 없다. 이로부터 해당 장면에서 똑똑히 알지 못하고 넘어간 것은 동화극이 끝날 때까지도 리해할수 없게 된다.

동화극문학의 이야기줄거리가 단순하고 명백하다는것은 결코 이야기가 간단하고 심도가 얕다는 의미가 아니다.

동화극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그속에는 알맹이가 박힌 생활의 흐름과 굴곡이 있다.

동화극문학에서 이야기가 명백하고 간결하다는것은 어린이들의 리해에 혼란을 줄수 있는 복잡한 사건들과 많은 등장인물들을 필요없이 벌려놓지 않고 사건을 단순하고 명백한것으로 설정하며 직감적으로 내용을 리해할수 있도록 극적인 생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것이다.

동화 《불구술》과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은 다같이 자연과의 투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동화 《불구술》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땀방울—불구술이 소한, 대한과의 거듭되는 싸움을 벌리면서 벼랑산에 구멍도 평 뚫고 다리도 우뚝우뚝 세워나가는 이야기이며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은 풍년벼이삭과 이상기후두령이 장기승부를 다투는 이야기이다.

동화에서는 불구술이 흘러가면서 일해나가는 과정을 시공간적제한을 받음이 없이 차례차례 다 보여줄수 있다. 그러나 희곡의 한 형태인 동화극문학에서는 언어행동이 기본을 이루는것만큼 그 실현을 위한 현실적시공간을 불가피하게 고정시킬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부터 동화극문학 《풍년장훈》에서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기경기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타고 이상기후두령이 눈서리장수, 왕가물장수, 무더기비장수를 공격으로 내몰지만 풍년벼이삭편의 비닐박막장수, 저수지장수, 살초제장수 등에 의해 그놈들이 먹히우는 흥미있는 장면들을 펼쳐보이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농장벌에서 이상기후와의 투쟁과정, 풍년작황을 마련해가는 이야기를 무대적으로 동심에 맞게 형상할수 있는 《장기경기》라는 독특한 이야기흐름새를 발견함으로써 간단한 이야기속에서 어린이들이 사상적내용을 직감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극문학에서는 이야기를 명백하고 간결하게 짜나가기 위하여 사건의 순차를 뒤바꾸거나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무질서하게 끼워넣지 않으며 이야기줄거리의 흐름을 사건의 발생, 발전, 절정, 해결의 흐름으로 명백히 하면서 마감에 가서 어린 독자들이 작품이 주자는 사상을 정확히 알도록 하고있다.

동화극문학창작가들은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이와 같은 특성들을 잘 살려나감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고 그들을 옹게 교양할수 있는 동화극문학을 더 많이 창작해나가야 할것이다.